



법익 조대 마하부와 스님 태극 옷바탕을 선원장

“선정과 평정심을 제발하기 위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통한 지혜 수행을 병행해야 한다. 화고부당한 마음 집중과 마음챙김 수련으로 선정과 지혜가 충분히 숙달됐을 때는 드디어 마음의 중심부를 바로 부각할 수 있습니다. 깊은 선정과 지혜 수련으로 무명은 여가의 세월동안 절대적 권좌를 누려왔던 마음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13면

뉴스특뉴스
news in news

청년불교 지원망 구성

청년은 사회의 동량이며,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렇다면 한국 청년불교의 현실은 어떨까.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18일 발표한 ‘신입생 특성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중 불자비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개신교는 27.6%, 가톨릭은 16.3% 순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년 청년법회를 아주 귀찮게 여긴다. 단체가 어린이 수련대회 장소로 요청하면 대부분 사찰에서는 이만저만 핑계를 대고 새 주지가 어린이 법회를 없애려고 하여 신도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어린이 청소년 법회 해참자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스님들의 시각이 청년불교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전국 본파사 주지스님 1200여명을 대상으로 법회, 수련회, 신도회 활동, 재가단체 지원 여부 등을 묻는 포교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일부 조사 내용을 들여보면 어린이 법회 운영 비율은 22%, 중고등부 법회는 16%, 청년법회는 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의 미래는 밝을까” 이말에 자신있게 예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종단차원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단체 네트워크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다. 또 어린이 청소년 불교 활성화 위해 법회를 장려하는 스님에게는 주지교과를 높게 반영하여 포교사찰주지에 우선 임명토록 하는 특단의 정책도 필요하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원우(취재 1부 차장)

25일 새벽 용역업체 직원 등 120명 철마선원 난입

불교계, 법난규정·배후규명 촉구

시민단체 등 대책위 구성 진상조사

25일 송추 철마선원 난입사건에 대한 진상과 배후를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불교계는 이번 사태를 ‘법난’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배후자 처벌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불교계 단체 및 일반 시민사회단체들도 ‘진상조사대책위’를 발족시키는 등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번 북한산 철마선원 폭력사태는 25일 새벽 2시 45분 북한산 관동도로의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스님들이 농성중인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용대리 철마선원에 자정 정박 수호회 소속 무승적자 30여명과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송추 1층 불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마선원에 난입한 폭력배들에게 폭행당한뒤 10m 높이의 망루에서 밀려내던져 실신한설치미수가 최병수 씨의 사진을 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호동 정법수호회 3명과 용역업체 직원 등 7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의 주동자인 김병호는 이번 것으로 정법수호회 차원에서

일어난 일로 신변 보호를 위해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공사를 재개하려는 LG건설 등 시공사가 배후에서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대변인 종훈스님과 조계종 공동대책위는 25일 “천인공노할 폭력을 휘두른 이번 사건은 법난”이라고 성토했고 “폭력배에 대한 엄중조사와 배후 규명, 관동도로 공사 중지, 공사의 차기 정권 이양 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철마선원 난입 사건을 비난하는 불교 및 시민사회 단체들의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북한산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계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관련자 처벌과 배후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실련, YMCA, 우이령보존회, 참여연대, 국립공원유지하는시민모임, 문화개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북한산농성장폭력행위진상조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shanmi@buddhaha.com**

법원, 철마선원 7일내 철거 명령

공대위 “공사금지 16일 결정과 모순... 이의 신청 낼 것”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청 민사합의 4부(부장판사 김은기)는 26일 건축을 철거 및 토지인도단행 가처분 소송에서 ‘터질 입구와 출구부분인 양주군 용대리 53-11 입야, 297-1 답, 298 전, 55-5 입야에 설치된 철마선원과 의정부 호원동

삼국유사 목판본들 모두 국보·보물 지정

현존하는 <삼국유사> 목판본들이 한꺼번에 국보나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24일 <삼국유사> 목판본 중 유일할 국가 지정문화재인 보물 419호 <삼국유사> ‘권3-5’ (14세기 말)를 국보로 승격시켜 지정 예고했다. 또 같은 조선 초기 판본인 삼강고서박물판(권제4 및 부산 범어사 소장본 권 제4-5, 현

재 학계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규장각 소장본인명 정맥본, 조선 중종 7년, 5권 완질과 고려대 도서관 소장본 권 제3-5을 각각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 지정에는 <삼국유사>의 가치 재평가에 의의가 있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권형진 기자

국제불교사상사학회 창립

회장 송석구 총장, 영문학술지 등 발간

한국 불교학계가 국제 포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영문학술지와 영문서적을 간행해 한국 불교학계의 연구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외국의 불교학자 및 국제학술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목적으로 한 국제불교연구회(회장 송석구 동국대 총장)가 24일 창립된 것이다.

국내 학자 50여 명과 외국 학자 20여 명 등 국내외 학자 70여 명이 참여한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는 <한국불교전서>를 비롯해 한국 불교 전적을 영어로 번역하고, 국제영문학술지의 연 2회 발간, 정기적인 국제

시조문학 어울림 한마당

2002 만해축전 일환, 8월 4~6일 백담사

오늘의 시조학회 가 주최하고 본사가 협찬하는 ‘시조 문학 어울림 한마당’이 2002 만해축전 행사 일환으로 열립니다. 아래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에서 펼쳐지는 행사에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2930-6475

▶8월 4일
14:00-18:00 시조문학강좌(백담사 시조의 정혜성 탐구)
20:00-24:00 자작 시조 낭송, 문화캠프

▶8월 5일
08:00-15:00 청소년 시조백일장
15:00-16:00 시조문학 어울림 마당
19:00-24:00 시조문학 탐구 및 탐방이

시조학회 주최 · 현대불교 협찬

조계사 대웅전 전면 해체·보수

조계사 대웅전이 8월초부터 전면 해체 보수 작업에 들어간다. 조계사주지 지휘는 “대웅전 지붕이 내려앉아 석기래와 상량부에 목재를 이용해 임시로 조치했으나 안전에 문제가 많고, 또 목재들이 심각하게 썩어져 있어 8월초 보수에 들어가 9월말 완전히 해체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계사는 지난5월 대웅전 해체복원에 대한 문화재시의를 거쳐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다. 한명우 기자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청소년 불자 감소

1. 청년 불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학생회 활동의 부진 ②사찰의 포교 부진
③불교는 어려운 종교란 인식 ④인터넷, 게임 등의 영향
⑤대중문화의 영향

2. 주변의 청소년들에게 불교 신앙을 권유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①있다 ②없다

설문 참여: 8월 1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집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81호 23면에 실립니다.

풍산한식동기기와 가격을 대폭 내렸습니다

평당 54 만원에서

42

만원으로 대폭 인하 (100평 기준, 시공비 포함)
· 암기와: 3,580 → 2,380원/장 (33%인하)

풍산한식동기기는 전통을 소중히 하는 사찰, 고건축물 등 한식 가옥과 주택의 미를 추구하는 기념 건축물, 일반 가옥 등에 잘 어울리는 지붕재입니다.

풍산한식동기기는 이런 곳에 시공하면 좋습니다.

- 세찬 비바람과 추위로 기와가 날아가거나 동파가 심한 곳
- 건물 지반이나 골조가 약해 지붕의 하중을 줄여야 하는 곳
- 한국의 전통미와 실용성이 필요한 건물
-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 해야하는 건물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부품 하나 하나마다 새겨진 풍산한식동기기와 마크를 확인하십시오.

풍산한식동기기는 당사 지정 전문시공사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 풍산지정 전문시공사 { 보광건축(서울): 011-204-6238
성원건축(서울): 011-445-7811
세주관급(영주): 011-401-5312

문의: (주)풍산 건축자재 담당 02-3406-5114, 011-898-9720

주식회사 풍산 www.poongsan.co.kr